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금융개혁법안 최종안 도출 난항

-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자체적인 시한을 6월 25일 금요일로 설정하고 양원의 안을 통합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몇몇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.
 - 하원은 주요 은행의 부실화로 경제전체가 위협받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1,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는 안을 주장해 왔으나, 감독당국이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철회를 결정하는 등 상원과 하원의 협상은 진척을 보이고 있음.
 -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G-20 회의 이전에 금융개혁법안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어,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음.
 - 그러나 상업은행의 위험자산 투자제한, 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G-20 이전에 금융개혁안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연방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범위와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예산 배정,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문제 등에서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.
 - 새로운 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자동차 딜러를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가이며, 하원은 자동차 딜러에 대한 적용 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원은 감독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.
 - 지난 6월 23일 협상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실업으로 재산이 압류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역개발 예산 40억 달러를 법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함.
 -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룰(Volcker Rule)의 적용문제이며, 상원의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하원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.
-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에 의해 보증되는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허용 문제와 파생상품 거래은행에 대한 담보설정요구 문제 등에서 제한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원과의 마찰이 예상됨.

(LA Times 외, 6/24)